

포도원 교회 리더 수양회 모임 - 성령 세미나
(8월 27일 - 28일 by Chan Ham 목사)

성령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사역들 일까요? 기독교 안의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사역을 두가지로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알게모르게 교회는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 보다도 더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의 말씀과 믿음 안에 가두어 놓고 오직 교회 의식과 목회의 임무에만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도 제한적인 교회들을 배척함으로 형제적인 신앙의 관계를 끊고 독선적인 행동으로 교회에 성령님의 인도함에서 나오는 화평과 사랑을 잘 전달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령님에게 우선권을 주지 못한 문제들로 교회들이 2천년을 지내왔지만 그래도 교회역사의 선배들은 신앙의 후손들에게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남기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성령님이 교회안에서 일하심과 공동체 안에서 인도하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약본을 적은 글입니다. 특히 '성령님과 교회' 부분은 영국 학자인 Michael Green 의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I. 성령님과 교회

1. 성령님은 연합을 창조하신다 - The Spirit creates unity

a. 성령님은 연합을 만드신다 - The Spirit makes unity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연합함을 만드신다. 에베소서 4.3-4 에서 바울이 그리고 있는 스케치는 성령안에서 평안으로 연합하는 것이었다. 오직 교회에는 한 성령, 한 몸, 한 나눔의 소망 이었다. 그러나 이런 은혜는 각자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으로 조달 되었다. 잘못하면 모순적일수 있지만 연합은 믿는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또한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 지지 않는 은사이다.

b. 교회는 연합을 반듯이 지켜야 한다 - The Church must preserve unity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하시지만 예수안에서 한몸인 믿는자들은 성령으로써 서로 한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바로 그 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이리므로 부자인든 가난한자든, 배운자든 학문이 없는자든, 여자든 남자이든, 각자 다른 인종이든 나라들이든 모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골 3.11; 약 2.1). 오직 주님으로 구원받고 또한 주님이 없었으면 아무도 구원이 없었을 것이다. 성령님의 지시로 연합이 없었다면 사마리아에게 문이 열리고 (행 8),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시고 (행 10), 그리고 할례가 이방인들에게 요구되지 않았다 (행 15).

c. 안디옥교회의 연합 - Unity at Antioch

안디옥 교회를 (행 13.1) 보면 좋은 예가 될수 있다. 지도력의 구성은 연합적인 구조였는데 현대 교회에서 쓰는 회사적인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다. 이 예는 예언자들과 가르치는 자들로 함께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조화는 환상적이지는 않다.

바나바- 부자였고 사이푸리트의 레위 족이며 많은 땅주인 이었다.

시므온- 검은색 이란 별명을 가졌고 아마도 흑인으로 간주된다

싸이른의 루시어스- 북아프리카 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마나엔- 헤롯밭에서 벼를 배운자이다.

바울- 가말리아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운 학자요 부가 있는 유대인-로마인이다.

이들의 이름들이 바로 성령으로 함께한 연합을 말해 준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바울이 이런 연합된 상황에서 비교해 볼때 화가 날수도 있었을 것이다.

d. 연합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Disunity at Corinth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여러분야에서 갖은 것이 많은 교회였지만 분열이 심했다. 그 이유는?

2. 성령님은 화목을 가지고 오신다 - The Spirit brings reconciliation

화목은 연합을 가져오는 답의 문장이다. 엡 2.14, 18 에 잘 나와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큰 장벽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장벽은 허물어 졌다.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허물을 그리스도 께서 허물어 주셨다.

3. 성령님은 교제를 (신앙) 이끄신다- The Spirit makes fellowship

a. 관계를 나누는신앙- Shared relationships

초대 교회에서 성령의 강한 나타남은 바로 교제에 있었다. 성령안에서 '교제' 라는 말은 두 군데 나온다. 고후 13.13 와 빌 2.1 이다. 이뜻의 정확한 뜻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교제'나 또는 '성령과 연합하여 인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일 것이다.

b. 물질을 나누는신앙- Shared possessions

이것은 어떤 불쌍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서 필요성을 따라 욕심없이 희생하고 나누어 지는 정신을 말한다. 사랑안에서 공유되고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주장이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

c. 나누는 공동체의 신앙이다 - Christian communism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적인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대한 공동체 이다. 예루살렘의 공동체도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쓴 아름다운 실패이다. 나누는 것들은 사랑과 마음과 믿음과 인간관계를 성령의 충만안에서 나누는 것이다.

d. 믿는 자들의 나눔의 보살핌- Christian caring

예루살렘은 실패한 공동체이다. 교회는 돈이 바닥나고 부자들의 헌신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그러나 안디옥은 예언된 흉년이 오기도 전에 헌금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할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감쌌다.

4. 성령님은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다- The Spirit enables worship

a. 예배의 질-quality of worship

네번제로의 성령의 일하심은 예배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초대 교회들은 공동체의 삶을 살기위해서만 성령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완전히 성령께 의지하기를 원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었다. 핏막 중에서도 (행 4.24)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행 2.47;3.8-9).

b. 예배 의 요소들- Elements in worship

초대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이야기 한다. 행 13 장에 교회가 예배로 하나되고 금식으로 준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강하게 받은것 같다. 교회 예언자들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시켰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전략도 예배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지도와 나타남을 통해서다. 계시록에서도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안에서의 지시함을 말했는데 이것도 예배적인 배경에서의 설명이다 (계 1.10). 그리고 4 장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대했다 (계 4.2-5).

c. 영적인 예배- Spiritual worship

예배는 성령안에서 드러지는 것이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4 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죄성인 우리의 의와 인간의 장소로 성령님을 예배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심을 입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열려 주시었기 때문에 예배는 이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적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하는것이고 성령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5. 예배안에서의 기도- Prayers in worship

베드로와 요한이 회당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받고 풀렸을때 그들은 더욱더 기도하였다. 어떤 유대인의 전통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기도로 그들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기도는 시편 2장을 의지했고 그 내용으로 간구했다. 주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전하는 기도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굳건히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했고 그뒤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다 (행 4.31). 이것은 예배안에서 생기는 성령님의 나타남의 현실이다.

II. 성령님과 나타남-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교회는 이제 프로그램과 문화적인 준비로 인해 성령님을 기다릴줄도 또한 그분의 나타남에 민감하지도 않다. 고린도 전서 에서도 성령의 나타남을 (고전 12.7) 주신는 것은 유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서구적인 사상으로 물들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험할수 있는 성경적이고 동양적인 사상을 버리고 너무 과학과 철학적으로만 신앙을 해석하였다. 이제는 어떤 현상을 꼭 샤만리즘 (shamanism) 과 애니미즘 (animism) 또는 정령주의로만 몰아 정죄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겸손히 우리자신을 내려 놓아야 한다 (행 2.1-13). 본인이 성령님의 충만함과 나타남이 강하게 없으면서 무조건 이단으로 모는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마음이다. 현대 기독교 100년 사이에 특히 미국 보수주의 자들이 이단적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후 20-30년 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로 판정이 났다. 한국도 고 이용도 (1901-1933) 목사님이 돌아가신지 70년 후인 2000년에 이단 정죄를 교계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풀었다. 누가 함부로 주님의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수 있을까?

1. 성령님의 나타남 -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가 잘못알수도 실수 할수도 있는 부분이다. 혹 너무 감정적으로 나타남이 성령의 움직임으로 판단할수 있고 어떤것은 그냥 자신의 감정으로 우는것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상관이 없을수 있다. 인도의 어떤 종교의 예배 모습에는 (national geography 참고) 그들의 신들이리는 모습이 마치 성령사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현상을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마약과 술취한 모습이 마치 성령에 강하게 이끌리는 모습과도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도데체 어떤 것이 맞을까? 고상하게 조용하게 하는것이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맞게 관주 되어야 하나?

그렇게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을 함부로 부정해서도 인정해서도 안된다. 특히 축사사역에서는 이런 혼동이 많이 나타날수 있다. 악한영들의 나타남을 성령의 나타남으로 보아도 안될것이다. 보통 성령의 나타남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역에 있어본 사람들이 아닌 그룹들로 보통 정죄하는 시각이었다. 또한 어떤 경험을 해봤지만 부정적인 입장이 있던 사람들은 경험해도 소용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오직 사랑과 말씀이라는 목표하에 도리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성령휘방 죄도 바로 귀신을 축사하실때 인데 이 사건의 중심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 질때 방해하는 것이다. 성령의 나타남은 오직 성령님이 지휘하시고 움직여야만 되고 우리는 마음과 몸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분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

2. 성령 세례 와 중생 경험 -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The Conversion and the Holy Spirit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다시금 100년 사이에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회사에서 물세례는 전통을 지켰왔는데 왜성령세례는 슬그머니 없었졌다.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의 기도와 경험을 한번 다시 살피어 볼만하다.

-성령세례와 중생경험은 동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단 한번의 경험이다 (칼빈주의 와 보수주의)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동시적이고 오직 물세례때 일어나며 물세례없이 성령세례는 없다

(카톨릭)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성령세례와 관련없고 능력을 받고 선교와 전도를 위함이다 (오순절/복음 성령운동자들)

3. 성령의 열매들-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는 삶에 있어 꼭 실용되고 나타나야 하지만 우리의 임무이다. 성령께서 은사같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우리의 성결과 신앙의 노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열매이다. 열매는 노력이 없이는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은사는 선물이다 그러나 열매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다. 앎은 자들도 믿는 자들보다 더 강하게 이런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세상신의 열매이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노력으로 맺어지는 성품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다. 육신의 주장보다는 영의 삶에서 성령님께 모든 지배를 받은 자들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착하게 살고 공자같이 사는 법을 지키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4. 성령의 은사들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들은 고린도전서에는 9 가지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벌어지는 사역들과 은사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간단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방언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a. 방언의 은사/Gifts of tongues:

방언의 분류는 영으로 하는 보통 신자들이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 (Glossolalia) 또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어(Xenossolalia)가 확실로 있다. 결론은 방언은 외국어가 (배워서 하는 언어) 아니라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이고 그지역에 맞는 언어로 들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다. 본인도 방언은 우리가 흔히 배워서 하는 외국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관점이고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들리수는 있어도 배워서 하는 언어같이 자기 의사를 자연스럽게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안에 있는 내영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혀를 움직이고 내가 말할라고 해야지 완강하게 안하면 못하는 것이 방언이다.

b. 방언 터짐/ Burst of tongues:

성령의 일하심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방언이다. 특히 참 회개뒤에는 꼭 방언터짐이 강하게 있는 것을 흔히 본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회중집회라든가 개인적인 골방기도에서 방언들이 많이 터진다. 또한 축사뒤에도 빈공간 부분에 방언들이 많이 터진다. 사도행전과 같이 현대시간에 성령님이 일하심이 방언의 나타남과 긴밀한 현상적인 부분들이 있다. 성경에서는 교회의 시작이 방언의 경험이었고 (행 2.1), 이방인들이 처음 경험한 것이요 (행 10), 바울도 받았고 (행 9.7; 고전 14), 처음 성령강림후 20년이 지나간 사도행전 19 장에서도 성령받고 방언을 받게 되었다.

c. 방언 통역/ The interpretation of tongue:

3 명이 동시에 통역을 하면 똑 같은 통역이 나올까? 통역자들이 각각 다른 방에서 같은 방언을 듣는다면 3 명이 똑같은 번역이 나올까? 보통 방언을 10분 말하면 듣는 언어로는 3분도 안되는 통역이 나온다. 왜 그렇까? 항상 방언 통역이 되는 것일까?

d. 방언의 목적- The purpose of tongues

d.1. 성경적으로 본 방언은 무엇일까?

1. 초대 교회의 시작은 성령충만과 방언이다.
 - 1.2. 하나님을 큰일말하고 하나님을 높임. (행 2 장 과 10 장)
 - 1.3. 성대를 사용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이 함께 나올 수 있다
2. 그후 교회들의 신앙생활과 함께했고 (고전) 또 초대교회후 2 세대가 물려받은 선물이었다.
3. 내 영이 기도함 (고린도 전서 12-14 본 견해)
 - 3.1. 사람에게 하지않고 하나님께 기도함
 - 3.2. 아무도 알아듣지 않음

- 3.3. 성령으로 비밀을 말함
- 3.4. 자신에게 덕을 세움
- 3.5. 바울이 모든 사람들도 다 방언을 하기를 원했을 정도로 걱정했던 부분
- 3.6. 방언을 하면 통역하기를 구하라 함 (이 뜻은 통역을 못하니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
- 3.7. 내영이 열매는 맺지만 내 마음은 열매가 없음 (못 알아 듣기 때문에)
- 3.8. 자신이 영으로 노래함 (방언으로)
- 3.9.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함
- 3.10. 혀를 다스리라 함 (야 3 장)

d.2. 현상적으로 본 왜 방언이 필요한가?

1. 내 영이 영적 안테나를 올리는 것임
2. 방언을 통하여 힘을 얻음
3. 영이 하나님의 임재에 친밀해짐 (sensitive)
4. 영적인 것들이 일어남 (activation)
5. 마귀가 싫어함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6. 귀신과 다른 영들이 시기함 (알아듣어서 인지 못알아 들어서 인지)

7. 미래에 대하여 말함
8. 방언은 기도의 언어이다.
9. 자신의 견고한 진을 파괴함
10. 왜 성령충만함의 강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방언이다. 왜 다른 은사들이 좀더 통상적이지 않을까

e. 성령충만 -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은 구약에서 바라던 약속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다시 확인해 주신 약속이요 오순절때 이루어 졌던 사건이요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사역하던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사야서, 요엘서, 에스겔 등등 구약의 선지자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지는 그런 계시와 약속들이 많이 나온다. '충만' 언어는 교회와 예수님께 쓰여졌지 성령님에게 대하여 쓰여진 기록은 성경에 없다. 이것은 현대 언어이다. 그러나 누가 좋아하는 동사단어로서 '충만함을 받아야' 또는 형용사로 '충만' 을 사용하였다. 이런 것들은 행 13.52; 엡 5.18; 롬 15.13 과 골 1.8-9)이 있다. 성령충만이란 어떤 사람이 습관적이고 평소에 성령님으로 지배받고 통치받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 한다. 즉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델이시다. (누 4.1; 스테반 - 행 7.55; 바나바 - 행 11.24). * 이런 충만 부분을 부정적인 요소로도 충만함을 사용한다 (문둥병 현상의 충만함 누 5.12; 엘리마 의 간악함의 충만 - 행 13.10).

III. 성도의 자세: 고린도 전서 12-14

은사와 예언에 대한 관심있는 기록은 역시 고린도 전서에 있다. 우리는 자세히 고린도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집고 넘어감으로 예언의 대한 생각과 정리가 쉽게된다. 은사가 결론적으로 교회를 파괴하였나 왕성하게 하였나?

바울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

개혁주의나 세대주의 말대로 은사가 성경의 완성으로 (350 AD)으로 끝난것일까? 바울이 어느때 고린도 교회가 은사문제에 시끄러우니 은사들을 그만 사용하라고 말했다? 고전 13 장은 신령한 은사들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들에 대한 동기를 더욱더 알려줌으로써 강화하려는 뜻에서 써나간 것이다. 만약 바울이 은사금지령을 내리고 또는 은사를 사랑 (은사) 으로 바꾸라고 했으면 14 장에서 더이상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은 은사가 아닌 동기요 자세요 태도이다. 그러면 13 장이 잘못으로 14 장 앞으로 간것일까? 그러나 교회지도자들이 그냥 성경 canonization 때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다. 그이유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뜻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난해적인 부분이 바로 저자의 정확도를 살려주고 역사적으로 사실인것을 말해주고 있다. 교회는 이런 실수들이 부끄럽지 않고 사실과 실수에서 배우도로 성경을 다루었다. 그러다면 하나님 의도안에서 하나님이 부흥의 시간을 관리하신다고 믿고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해도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흥을 기다림속에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이 있기에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해도 된다는 자세도 잘못된것이다. 바울의 궁극적 목적은 은사로 인해 아무리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어도 이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요 예언은 계속하고 방언을 더 하나님께 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담겨져 있다. 바울은 큰 은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랬다.

끝으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시고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교리적으로만 보면 안된다. 그분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데 오직 성령님으로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자들로서 켈과 가정교회를 인도할때 종교적이고 오랜 인간적인 교회의 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신앙을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 바로 예수님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었다.